



끊임없이 상상력 자극하는 마력의 책

박상룡의 《죽음의 한 연구(전2권)》

이문재 | 시인 · 《시사저널》 기자

‘문장수업’이란 말은 어폐가 있다. 문장은 수업해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졸업할 수 있다는 뉘앙스가 풍기는 것이다. 문장수업이 후… 문장에 졸업 같은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 같은 글쟁이에게 문장은 평생 학교, 평생 공부일 수밖에 없다. 아. 언제, 어떻게 문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기자라는 직업이 가져다준 ‘축복’

대학을 졸업하고 20년 가까이 거의 매일 글을 쓰면서 살고 있다. 시사주간지 기자만 13년째다. 매주 서너 건씩의 기사를 마감해 왔다. 그리고 시를 쓰고 잡문들을 써왔다. 그리고 틈틈이 좋아하는 책(작품)을 읽어왔다. 다른 분야에서 이 정도 경력이라면 ‘장인’ 소리를 들을 만한데, 글쓰기에서는 그렇지 않다(물론 내 능력이 모자란 탓이 크지만). 글이란 그 형태나 장르가 다르다고 해서 어떤 편의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기사는 작성할 때마다 매번 수습 기자인 것 같고, 잡문은 애초의 설계(매우 어설픈 것이지만)대로 나오지 않는다. ‘엉덩이가 가벼워서’ 쓰게 된 시(선배들의 경험론에 따르면, 소설가의 첫째 조건은 엉덩이가 무거워야 한다)는 조금 예외지만, 그 시도 거개는 내 디자인에 맞게 태어나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에게 문장 교과서가 없을 리 없다. 매우 많고, 또 수시로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여기에 나는 축복을 하나 더 받고 있으니, 그 ‘교과서’의 저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스승들의 글을 읽을 때, 나는 눈으로만 읽지 않는다. 귀로도 듣는다. 스승들의 육성을 듣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스승(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스승이 불필요하다는 사람은 배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글쟁이들의 스승은 작품이다. 소설가 신경숙씨도 고백했거니와, 습작시절에 그는 선배 소설가들의 작품을 일일이 필사했다는 것이다. 선배들의 시 한 편 제대로 암송하지 못하는 나에게 신경숙씨의 문장수업은 감동의 차원을 뛰어넘는 섬뜩한 그 무엇이다. 나의 습작기는 왜 그렇게 미지근했을까, 하는 열등과 자책이 뒤엉키는 것이다.

내 문장수업의 첫 교실은 박상룡의 장편 《죽음의 한 연구(전2권)》(문학과지성사)였다. 이 텍스트는 한때 내 식량이었다. 대학원 극부 시절, 이 책을 하재봉 선배로부터 전해 받았다. 그때 그 책은 비서(秘書)였다. 절판된 상태여서 구하기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어렵게 손에 쥐었다 해도, 읽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나는 군 복무 중에 이 책을 완독했다.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이 소설을 읽으며 나는 ‘유체이탈’ 비슷한 체험을 했다. 군대생활이라는 매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심지어 배가 고프지 않았다.

유장하면서 섬세한 문장이 뿜어내는 종교적 분위기에 압도돼

나는 그 유장하고도 섬세한 문장, 그런 문장들이 뿜어내는 종교적 분위기에 매혹되고 말았다. 육감이 풍부하면서도 강인한 추구가 만져지는 문장! 내 문장의 태생지는 《죽음의 한 연구》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백했거니와, 저 텍스트는 고향일 뿐만 아니라, 마르지 않는 우물 같은 것이었다. 시가 되지 않을 때, 나는 저 마력적인 소설의 아무 페이지나 펼쳐놓고 몇 줄 읽었는데, 그때 어떤 이미지 한 줄이 빛을 발한다. 내 첫 시집에 실린 시 몇 편은 이 책의 몇몇 문장을 흉내내기 위한 안간힘이었다.

그러나 스승(모델)을 설정한다고 해서 그 스승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 내가 두려운 것은, 나의 이 ‘고해성사’가 이 책이 내장하고 있는 아우라에 기대려는 응석처럼 비쳐지거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 내 고아 같은 문장의 ‘아버 찾기’가 저 텍스트의 가장 자리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닌가, 내 허약한 문장에 대한 알리바이가 과장된 것은 아닌가, 하는 자의식으로 고통스러운 것이다.

박상룡 선생은 한 줄의 문장을 단번에 완성한 적이 없다. 《칠조 어린》(문학과지성사) 같은 대작도 아홉번이나 전면적으로 고쳐 썼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2백자 원고지에 볼펜으로 다 다시 썼다는 것이다. 작품의 고도(高度)뿐 아니라, 저 삼엄한 글쓰기 앞에서, 삼류 저널리스트로 살아가며 ‘한 줄의 시’를 꿈꾸는 나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다. 이제 와 생각컨대, 나, 철없어서, 꺾임을 몰라서, 너무 높은 산정 아래에다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세상을 내려다 본 것인지도 모른다. ‘한 줄의 시’를 쓸 때마다, 다시, 저 스무살 첫 강의실로 돌아갈 일이다. ●